

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

- 서울-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 선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-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((가칭)서울양주 고속도로(주))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(우선협상대상자 선정)하기 위해 '23년 8월부터 제3차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,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.
 - 이에 따라,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,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.
 -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, '25년 하반기 착공, '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-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서울-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, 양주시,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,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~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.
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,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 (044-201-3897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재 (044-201-3898)

